

이방인서 명품 타자로...기아 타격 선봉에 서다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1〉 1번 타자 이명기

175일간의 1위 행진으로 정규시즌 우승을 이룬 KIA 타이거즈는 '디펜딩 챔피언' 두산 베어스를 누르고 2017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100만 관중 기록까지 작성한 KIA의 극적이었던 한 해, '미친 공격'으로 팬들을 열광시킨 우승 멤버들을 단순대로 정리해본다.

■이명기 월별 성적

구분	경기수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17	67	0.373	10	25	2	1	1	9	2	2	0	9
5월	24	97	0.268	11	26	2	1	2	15	0	4	1	16
6월	24	100	0.390	19	39	8	2	0	17	0	11	1	8
7월	21	91	0.308	19	28	3	0	4	10	3	7	1	11
8월	21	81	0.296	13	24	5	0	0	6	2	3	0	10
9월이상	8	28	0.429	7	12	4	0	2	6	1	1	0	3

위기

4월 SK-KIA 트레이드 소식에 '1군 잔류할 수 있을까' 위기감 어색한 우익수 자리 실책에 진담 방망이는 4연타석 침묵하는데...

기회

"자신있게 하라" 감독 믿음에 톱타자 말고 우승 라인업 완성 8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 때 홈런 등 17개 안타·4할대 맹타

아찔

9월 발목 부상에 결장 했지만 시즌 타율 0.332로 전체 11위

KS 주연 '우뚱'

한국시리즈 3차전 결승타 등 타율 0.364·2타점 3득점 생애 첫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

"1위 팀의 1번 타자"라며 환하게 웃던 이명기는 KIA 타이거즈 'V11'의 선봉장이었다.

이명기는 KIA 김기태 감독의 2017시즌 구상에 없던 인물이었다. 그는 새 시즌이 시작될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난 4월 7일, SK와 이병규와의 4대4 갑작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었다. 이명기에게는 '기회'가 아닌 '위기'의 트레이드였다.

이명기는 "처음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과연 1군에 있을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했었다"고 말한다.

SK가 월만 감독 체제로 전환하면서 젊고 힘 있는 외야를 새로 구성했다. 부활을 꿈꾸던 이명기의 자리는 없었다. 트레이드로 새 길에 열리는 것 같았지만 그를 선택한 팀은 막강 외야의 KIA였다.

"생각해 보니 지난해 골든 글러브 수상자 두 명이 있더라"면서 웃던 이명기의 말처럼 '캡틴' 김주찬과 FA를 통해 영입한 최형우 그리고 또 다른 FA 나지완이 그에게는 익숙한 좌익수 자리와 겹쳤다. 새로 외야에 가세한 '빅리거' 버나디나와 함께 수비로는 리그에서 알아주는 김호영도 이명기의 머릿속을 지나쳤다.

격정 속에서도 기회는 왔다. 4월 9일 한화와의 홈경기가 이명기의 KIA 데뷔전이였다.

익숙지 않은 우익수 자리에서 2번 타자를 맡은 그는 멀티히트로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이명기는 KIA에서의 세 번째 경기였던 4월 12일 두산 원정에서 민망한 포구 실책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공격에서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날 이명기는 삼진 두 개를 기록하는 등 4타석에서 침묵했다.

치열한 외야 경쟁이 전개되고 있던 만큼 이명기는 다음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책 안 해봤어? 자신 있게 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김기태 감독은 다음 경기

에서도 이명기를 그대로 우익수로 투입했다.

위기 속에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7번 자리에서 역할을 하던 이명기는 이내 타선 전면에 섰던 버나디나와 테이블 세터를 구성했다. 이후 잠잠하던 버나디나의 방망이가 폭발하면서 '우승 라인업'이 만들어졌다. 버나디나가 3번으로 이동해 클린업 트리오의 무게를 더하고, 이명기가 톱타자 로 포문을 열었다.

일본과 미국을 뛰어넘은 KIA의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도 이명기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다. 이명기는 이 8경기에서 홈런 포함 17개의 안타로 0.447의 타율을 만들었다. 10차례 홈에 들어온 그는 9타점도 올렸다.

9월 3일 넥센 원정에서 입은 발목 부상으로 잠시 그라운드를 떠나있기도 했지만 규정타석을 채운 이명기는 0.332의 타율을 찍으며 2017시즌 타격 11위에 랭크됐다.

정규시즌의 기세는 포스트시즌에서도 이어졌다. 이명기는 한국시리즈 3차전 결승타의 주인공이 되는 등 생애 첫 한국시리즈에서 0.364의 타율과 함께 2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

SK 왕조 시절에도 조연에 머물러야 했던 이명기에게는 스스로 만든 무대라서 더 의미 있던 첫 한국시리즈였다. 위기가 위기로만 끝났다면 2017시즌의 이명기도 우승의 기쁨도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명기는 자신에게 쏟아진 우려의 시선을 뜨거운 환호로 바꿨다.

꿈꾸던 우승의 현장에 선 이명기는 또 다른 우승의 꿈을 꾀다. 고질적인 발목 부상은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수술은 피했다. 어느 해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은 이명기는 차분하게 내년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꾸준하고 강렬했던 KIA의 2017시즌에는 '이방인'에서 '복덩이'가 된 이명기가 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이영상 2회 할러데이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사이영상을 두 차례 수상한 투수 로이 할러데이(40·사진)가 8일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플로리다 파스코 경찰에 따르면 할러데이는 자신의 단발엔진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 멕시코만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비행기에는 할러데이 혼자 타고 있었다.

199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013년 은퇴할 때까지 할러데이는 16년 동안 통산 203승 105패, 평균자책점 3.38을 남겼다.

2003년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으로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2010년에는 필라델피아 필리스 유니폼을 입고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받아 양대 리그 사이영상을 석권했다.

또 필라델피아 소속이던 2010년 5월 30일에는 플로리다 말린스를 제물로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 퍼펙트게임의 위업을 달성하고 그해 10월 6일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만나 노히트 노런도 이뤘다. 이룬의 여지 없는 미래의 명예의 전당 입성 후보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할러데이는 은퇴 후 아마추어 조종사로 서비행기 조종에 몰두했다. /연합뉴스

'앞아저씨' 조인성 은퇴 두산, 코치직 제안



KBO 리그를 대표하는 포수 조인성(42·사진)이 20년 동안 썼던 마스크를 벗는다. 조인성은 8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를 통해 현역 은퇴를 발표하고 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그는 "오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서 은퇴한다. 아홉 살에 시작한 야구 선수 인생을 마흔세 살에 마감한다. 34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길을 이제 정리한다"며 "지금도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당장 내일이라도 훈련할 것만 같고, 누가 머리에 마스크를 씌우고 미트를 끼우면 떨릴 날 것만 같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자신이 거쳐 간 LG 트윈스와 SK 와이번스,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조인성은 "34년간 한 길을 걸어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앞으로 34년의 인생은 한국야구와 팬들에게 빛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다. 초심을 잃지 않는 '야구인' 조인성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두산 베어스의 김태형 감독은 조인성한테 배터리 코치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트럼프 "한국 여자골프 그웨잇!"

어제 국회 연설서 US오픈 우승 박성현 등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국회 연설에서 한국 여자골프를 극찬해 눈길을 끌었다.

열렬한 '골프매니아'로 잘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올해 US오픈 골프대회는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코스에서 열렸는데 한국 선수인 박성현이 우승했다"며 세삼 치켜세웠다.

올해로 72회째를 맞은 US여자오픈 골프대회는 지난 7월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인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렸다. 바로 그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데뷔 첫해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박성현(24)이다.

US오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라운드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대회를 방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

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곧바로 US여자오픈 대회를 찾았을 정도로 골프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박성현이 4라운드를 마치고 이동할 때 유리창 너머로 이를 직접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성현에게 기립 박수를 보내는 장면이 외신 사진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박성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켜보던 15번 홀(파5)에서 7m 바디 퍼트를 넣고 단독 1위로 치고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박성현의 2017년 US여자오픈 우승을 축하한다"고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라운드 경기 도중에 "US오픈 당시 'US여자오픈 현장에 와 있다. 아마추어 선수가 몇십 년 만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무척 흥미롭다'는 글을 올렸다.

그가 언급한 '아마추어 선수'는 최혜진(18)으로 15번 홀까지 박성현과 함께 공동 선두로 우승 경쟁을 벌인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US여자오픈은 박성현이 우승, 최혜진이 준우승한 것 외에도 공동 3위에 유소연(27)과 허미정(28)이 나란히 자리하는 등 10위 이내에 한국 국적 선수가 8명이나 이름을 올렸다.

이날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숫자 '4'까지 헤아리며 "한국 선수들이 모두 차지했다"고 한 것은 올해 US오픈 상위 4명이 모두 한국 선수였다는 점을 가리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한국 여자골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 뒤 박수를 치며 "축하드린다"고 말하는 등 올해 US여자오픈을 통해 한국 여자골프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KIA 'V11' 기념상품 예약 판매

KIA 타이거즈가 'V11'을 기념한 상품을 출시했다.

KIA는 9일부터 공식 상품 판매 업체인 비전코리아 (http://www.vjkorea.com)를 통해 2017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을 기념하는 상품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기념상품은 우승 엠블럼을 활용한 기념구와 페넨트, 배지, 우표, 머그컵, 열쇠고리, 링크담요, 후드티 등 12종이다.

기념구는 우승 엠블럼이 들어간 기본 상품(7000원)과 검정 바탕에 금색 엠블럼이 새겨진 흑구(2만원)로 나눠 판매된다. 또 한국시리즈 결정적 순간의 사진 15장

으로 만든 기념 우표(액자 포함)는 4만 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11번의 우승 엠블럼 배지 세트(케이스 포함)도 13만원에 판매된다.

비전코리아는 또 올 시즌 '동반 20승'을 달성한 허덕 노에시와 양현종 관련 기념상품(기념구, 배지, 우표)도 판매하고 있다.

앞서 마제스틱 코리아에서는 우승 기념 티셔츠(빨강/회색)와 모자를 출시했다. 기념 티셔츠와 모자는 여섯팀 업체인 마제스틱 코리아 온라인몰(http://tigers.lockerdium.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